

사회

영광원전 위조부품... 지역민 극도 불안감, 분노 폭발

“불량원전 모르고 살아온 우리 뭐냐”

지난 10월 의혹제기 불구 원전측 “문제없다”

짚은 고장에 이어 검증되지 않은 부품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영광원전 5·6호기의 가동 중단이 결정되자 지역민들이 극도의 불안감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원전 안전성과 직간접으로 관계된 모든 부분에 대한 조사와 함께 원전 가동의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식경제부가 품질 보증서를 위조한 부품이 영광원전 5호기와 6호기에 사용된 사실을 발표하며 ‘가동 중지’를 선언한 5일 오후, 영광 흥농 원자력발전소는 제부동항 날씨만큼이나 적막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특히 다른 원전에 비해 월등하게 사고가 많았던 5호기가 또다시 위조된 부품 사용으로 인해 가동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일부 주민들은 “이제까지 짚은 고장에는 이유가 있었다”며 격양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주민들은 또 품질보증서가 위조된 이른바 미검증 부품의 98% 이상인 5137개가 영광 5·6호기에만 집중적으로 사용됐다는 점에서도 의구심과 함께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다.

주민 이모(65)씨는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해서 불안해도 참아 왔는데 이 지경까지 인줄은 몰랐다”며 “지금까지 보증서를 위조한 부품이 들어있는 부실덩어리 발전소인줄도 모르고 위협속에서 살아온 우리는 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미검증 부품 사건은 한수원이 조만간 영광 5호기의 발전을 중단시킨 뒤 번압기를 교체기로 한 계획을 세운데다 6호기의 예방정비를 앞둔 와중에 터져 주민들의 충격은 더 크다.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영광원전이 짚은 문제를 일으키는데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며 변명에만 급급해온 원전측의 안이한 태도가 이 같은 사태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박응성 영광원전환경안전감시센터 소장은 “지난 10월 5호기 가동 중

단 문제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방문했을 때 이미 이 문제를 거론하며 가동 중단을 요구했으나 원전측은 문제없다고 일축했는데 결국 이런 큰 일이 벌어졌다”며 “지금이라도 안전조사를 꾸려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환 영광원전민간감시위 운영위원장은 “짚은 사고와 납품 비리까지 벌어진 영광원전은 총체적 부실 덩어리”라며 “1호기부터 6호기까지 가동을 중단하고 부품이나 기계, 인적자원까지 전면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는 연말까지 조사 기간으로 정했지만 이는 무의미한 조치

이고 다른 나라처럼 국제적인 수준의 정밀 조사를 한 뒤 발전소 재가동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5·6호기의 가동 중단 방침에 원전 직원들도 당혹해 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낫은 날씨, 극도의 긴장감 속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가동 중단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이야기하며 속을 태우는 모습이었다.

당장 대책을 전력수급의 문제는 당국의 종합대책이 시행되면 해결할 수 있지만, 연이은 사고로 실추된 조사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영광=조익성기자 ischo@kwangju.co.kr



영광원전 5·6호기 가동 중단이 발표된 5일 한수원 관계자들이 영광을 영광원전환경·안전감시센터를 찾아 영광원전 민간감시위원들에게 가동 중단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성추행범 지역 첫 화학적 거세 청구

광주지검... 범인 수용엔 15년 범위내 약물 투여

광주지검이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최초로 13세 미만의 남자 아이만 골라 성추행범으로 성추행한 20대 남성에 대해 일명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이 남성이 지난 2008년 첫 범죄를 저지른 뒤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다시 2012년 같은 범죄로 기소됐으나 또다시 형 집행을 유예시켜 관대한 처벌이 재범을 불러왔다는 지적

도 일고 있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전강진)는 5일 같은 남자 아동들 상대로 성추행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강모(20)씨에 대해 화학적 거세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강씨는 지난 2008년 10월 30일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

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인 2009년 8월 15일 인근에 사는 A(당시 8세)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뒤 1년 6개월 만에 풀려났으나 이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이후 강씨는 다른 남자아이들 성추행했다가 지난 7월 19일 벌의도로부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지난 8월 25일 A군을 강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이

성추행 상습범을 집행유예로 풀려준 것이 범죄를 키운 셈이 된 것이다.

법원은 고소장 접수와 함께 수사에 착수한 뒤 강씨의 정신감정 및 재범 위험성 조사 등을 공주치료감호소와 광주보호관찰소 등에 의뢰한 결과 강씨는 ‘소아 기호증’(사춘기 이전의 어린이들과의 성적 접촉을 선호하거나 이에 대한 상상을 통해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정신 질환)과 성도착증이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강씨는 15년 범위 내에서 석방 2개월 전부터 성호르몬 생성을 감소시키는 약물을 투여받으며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동시에 받아야 한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학교 급식조리원 수능 다음날 총파업 예고

광주·전남도 급식대란 오나

광주·전남 지역을 비롯한 전국 공립 초·중·고교에서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급식조리원들이 수능 다음 날인 9일 총파업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파업에 동참하는 급식 조리원이 많으면 상당수 학교에서 급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학생들이 도시락을 싸서 등교해야 하는 등 혼란이 우려된다.

민노총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9일요 예고된 총파업 실행을 두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난날 23일부터 쟁의 행위 찬반투표를 시작, 6일 오후 6시 마감

한다고 5일 밝혔다. 광주·전남지역 연대회의 조합원들도 현재 투표를 진행 중이다.

광주지역 초·중·고교에 근무하는 조리사·조리원 등 급식 종사원 1266명과 전남지역 2941명이 파업에 참여할 경우 급식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대회의는 학교 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호봉제 도입과 교육감의 직접 고용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직 신설 관련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하며 각 시·도교육감과 단체교섭을 벌여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주차 시비 벌이다 칼부림

서부경찰, 달이난 남성 추적

30대 남성이 주차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상대 남성에게 흉기로 찔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일동촌 인근 먹자골목에서 A(38)씨가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목 뒤편을 한

차례 찔렸다.

A씨는 이날 인근 술집 앞에 세워둔 차량의 주차문제로 다른 일행과 시비를 벌이다가 흉기에 찔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갑자기 한 남성이 술집 주차장에서 가져온 흉기를 휘둘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이난 남성의 행방을 쫓고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검경 DNA 따로 관리 탓에...

서부경찰, 찜질방 성추행범 1년만에 검거

검·경의 범죄자 DNA 정보가 공유되지 않은 탓에 성범죄자가 1년 만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5일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여성을 성추행한 박모(37)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8월 27일 새벽 6시 50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한 찜질방에서 A(여·34)씨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발을 쓰고 범행을 저지르던 박씨는 사건 직후 A씨가 소리를 지르고 놀라서 도망가던 도중 벗어놓고 간 신발에서 채취한 DNA를 2005년에도 같은 혐의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박씨는 범행

당시에도 지난 2010년 11월 저지른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중이었다. 그는 지난해 10월 재판과정에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경찰은 박씨의 DNA를 확보했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 박씨가 복역하고 출소한 지 한참 지난 뒤인 지난 10월 말께 대검찰청이 DNA 정보를 알려줘야 동일인임을 파악했다. 검·경이 각각의 DNA 정보를 따로 관리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시행된 ‘DNA은행법’은 경찰이 구속 피의자의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게, 검찰은 수형자의 DNA를 대검찰청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4년전 살인 후 도주 조폭 검거

해남경찰은 5일 4년 전 서울 강남의 한 거리에서 다른 파에 속한 조직 폭력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박모(41)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8년 9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극장 앞에서 김모(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박씨가 반항하자 공포탄을 한 발 쏜 것으로 알려졌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하차 요구에 먹살집은 무임승차자

○광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광주특사경)는 5일 열차에 무임승차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A(58)씨에 대해 사기 및 철도법상 직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광주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새벽 2시 20분께 익산발 정읍행 새마을호 열차에 무임승차하고, 하차를 요구하는 승무원(40)의 먹살을 잡은 혐의.

○경찰조사 결과 전과 12범인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무임승차를 해온 것으로 판명.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12타경 16184	2	동소 556-7 3890㎡	답	202,202,0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3	동소 556-8 3887㎡	답	202,202,0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3	동소 556-10 1446㎡	답	157,456,0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2타경 17163	1	광주광역시 북구 지아동 797-8 3002㎡ [공유자소장자, 임대료, 김대현 김지현 6분의 1 전부] [공유자후생연금회생는 1회만 허용]	전	207,138,000	현황전,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봉동 690-1 2149㎡ [공유자소장자, 임대료지분650분의 117전부 및공유자김길현지분650분의 116전부]	전	118,029,3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공유자후생연금회생는 1회만 허용
	2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 295 1349㎡	전	10,252,4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2타경 18814	1	광주광역시 북구 본촌동 2996 153.1㎡	답	91,860,000	현황전
	1	광주광역시 북구 신원동 479-1 641㎡	답	106,406,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동소 479-2 2331㎡	답	386,946,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2타경 18944	1	광주광역시 남구 화정동 728-9 47㎡	대	4,089,000	현황일부불물결집일전
	1	광주광역시 남구 월성동 345-3 340㎡	대	36,38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1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림동 493-11 3000㎡	답	75,00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2타경 21032	1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186 283㎡	답	8,49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1	나주시 안창동 263 1712㎡	답	18,660,8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동소 351-1 97坪 [현황:답]	전	4,911,1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2타경 21803	1	영광군 흥농읍 칠곡리 265-3 689㎡	지	217,621,740	일괄매각, 제외의 건물포함, 목록4현합장금지
	2	동소 265-3 가동동 단독주택66㎡ 사무소12㎡	지	217,621,740	일괄매각, 제외의 건물포함, 목록4현합장금지
	3	동소 351-3 33坪	전	3,242,400	일괄매각, 제외의 건물포함, 목록4현합장금지
[상가/오피스텔, 근린시설]					
2012타경 18012	1	화순군 화순읍 교리 70-1 공간아파트 104	근린시설	55,000,000	
	1	동소 998-8 1층 다가구54.77㎡ [1가구] 소매점64.75㎡ 2층 다가구49.43㎡ [1가구] 학원70.09㎡ 3층119.52㎡ [주거] 제외의 88.1㎡	주택	466,574,140	일괄매각, 제외의 건물포함
	1	영광군 흥농읍 칠곡리 265-3 689㎡	주유소용지	217,621,740	일괄매각, 제외의 건물포함, 목록4현합장금지
2012타경 16184	1	동소 556-2 1333㎡	답	200,954,0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1	동소 556-3 1315㎡	답	200,954,0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1	동소 556-4 1577㎡	답	200,954,0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1	동소 556-5 648㎡	답	200,954,0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1	동소 556-6 1647㎡	답	200,954,0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